



예전 내 고향집 대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펼쳐진 몇 필지의 평밭을 지나면 서 어린아이 반 아름 크기의 소나무가 우거진 언덕이 연이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혹 황새떼가 소나무 가지가 하얗토록 내려앉아 있었고, 늦여름부터 초가을 때쯤 비가 내린 후 하루쯤 지나 그 숲을 들어서면 한 바구니 가득 버섯을 주워 담을 수 있었다. 어른들은 지게와 작대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를 베기 위해 그 산에 들렀고, 아이들은 겨울철 썰매 밑판용 통나무를 얻기 위해 그 산을 들락거렸다. 그 산을 우리는 앞산이라 불렀다. 우리 고향 사람들의 추억은 그 앞산과 함께 하는 것이 참 많다.



서 옥 석 과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어느 해 겨울 앞산에서 벌목이 시작되었다. 소나무가 사정없이 잘리고 불도저가 잘려진 나머지 밑둥을 들어냈다. 삼천평이 넘는 널찍한 공터가 시원하게 펼쳐지자 그때까지 무심했던 우리들의 가슴에는 뭔가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땅에 들어선 것이 육계농장이었다. 두 달을 키우면 다 큰닭을 수확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 후 고향동네가 겪은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름철이면 파리가 들끓었고 동구 밖을 드나들 때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러한 상황은 5년쯤



자연친화적인 산간계 농장인 '산골농장'은 매년 봄이면 장미축제를 연다.



조각공원에서 바라보는 농장이 이곳이 닭을 키우는 곳을 알려준다.

이 지나 그 농장이 동네를 떠날 때까지 계속 되었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고향사람들에게 있어서 육계농장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이다.

적어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존재는 내 마음, 내 몸과 진정한 짝짓기가 가능한 근원적 에너지이다. 항상 그곳이 그곳일 뿐인데 전혀 물리지 않는 곳, 풀포기가 해를 향해 몸을 기울이듯 떠나있는 자들이 자신의 고향에 기울이는 마음과 애정은 자연의 이치중의 하나인 듯 싶다.

거기에는 그리움을 넘어서는 애달픔, 아름다움이 함께 한다. 간혹 만나게 되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리움에 아파하는 모습은 죽은 엄마의 무덤가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 만큼이나 애처롭다.

우리 농촌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고 나선다면 그건 자

신의 전공을 팽개치고 걸도는 사람에 비교할 수 있다. '생산액 얼마'로 나타내지는 경제적 지표와는 차원이 다른 무한대의 가치가 우리 농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농촌은 모든 이의 심신의 휴양지이며 근원적 에너지 공급처이다. 생태밥상에 적합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조직이란 단어와는 다른 품위와 가치를 지닌 공동체가 존재한다. 태생적 문화가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가치를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농촌은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온 국민의 연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큰 명분과 힘도 얻을 수 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산땀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을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생산활동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더
구나 그것이 그토록 소중한 내 고향의 산천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참
으로 용서가 어려운 일이다.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디.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정지용 시인이 노래한 고향에 대한 상실감
이다. 헌데 그 상실감은 남의 탓이 아니었다.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같은 존재로 변해
버린 자신의 문제였다. 고향 산천과 새와 꽃
들은 예나 다름이 없건만, 풀피리 소리의 감
미로움보다 입술에 스치는 쓰디 쓴 풀줄기의
맛을 먼저 느낄 만큼 진·선·미에 대한 나의
감각이 무디어진 탓에 생겨난 고향상실이다.

이렇게 내 고향을 앓아간 존재로서 미워하
고 원망할 대상도 없는, 내 탓에 생긴 고향상
실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사랑이 웬지
서럽지만 달콤한 것이라면 미움은 통쾌하지
만 고통스런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농촌의 다양한 가치들은 깨끗한
환경이란 그릇에 담겨있다. 깨진 그릇에 물이
담길 수 없듯이 농촌의 환경이 망가지는 그
순간 나머지 모든 가치들은 그 빛을 잃어버린

다. 이런 배경에서 축산업을 대하는 국민의
정서가 많이 변해졌다. 과거에는 ‘친밀단계’,
현재에는 ‘관대화 단계’ 라고 표현하고 싶다.

새벽을 알리던 닭울음소리, 말문을 틀 무렵
배웠던 동요 송아지, 아쉬울 때 맞춰 집안의
현금을 챙겨주던 돼지 등 고향의 이미지에 채
색을 담당했던 것들에 대한 향수와 추억은 어
느새 고향의 실개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자,
파리 모기의 온상지, 때도 장소도 없이 풍겨
오는 악취의 주범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어느 결에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대화 정서가 사라지고 배척의 단계로 바뀔
수 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생산활동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그토록
소중한 내 고향의 산천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용서가 어려운 일이다.

작년도 닭고기가 창출한 생산액은 1조 4천
억 원이다. 한 해 동안 39%가 늘어난 액수이
다. 사과농사보다 2배가 넘고 포도농사 보다
3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제는 그만큼의 책무
를 인식해야 한다. 고향의 푸른 이미지를 더
해주는 아름다운 양계장을 만들어보자. 

